



페더러

정현

# 내가 황제다

## 호주오픈 4강 오늘 오후 5시 30분...정현, 세계 2위 페더러와 역사적 대결



‘차세대 황제’와 ‘현역 테니스 황제’가 드디어 코트에서 맞붙는다.

26일 오후 5시 30분(한국시간) 호주 멜버른의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리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500만 호주달러·약 463억원) 남자단식 준결승 정현(58위·한국체대)과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의 경기는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킬 ‘빅 이벤트’다.

‘테니스 황제’ 페더러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테니스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다. 1981년생인 페더러는 메이저 대회 남자단식에서 19번 우승,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오픈 2연패를 달성하면 사상 최초로 메이저 20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는다.

2016년 Wimbledon을 마친 뒤 무릎 부상으로 리우 올림픽 출전마저 포기하자 주위에서는 3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그의 나이를 고려해 ‘은퇴설’까지 나왔었다. 하지만 2017년 1월 호주오픈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우승을 일궈내며 재기에 시동을 걸었고, 지난해 Wimbledon마저 제패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이에 맞서는 정현은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에서 우승,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1996년생인 그는 21세 이하 선수 중 세계 랭킹이 높은 8명을 추려 치른 이 대회를 제패하며 ‘차세대 선두 주자’로 공인받았다.

정현 역시 페더러처럼 2016년 하반기에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해 5월 프랑스오픈 1회전에서 세계 랭킹 154위였던 캉탱 알리스(프랑스)에게 0-3으로 완패한 이후 부상 치료와 훈련을 이유로 4개월 이상 대회 출전을 중단한 것이

다. 마침 페더러가 불참하기로 한 올림픽 출전권이 다음 예비 순번이었던 정현에게 넘어갔지만 정현은 올림픽 출전권마저 반납했다.

이 시기에 부상 치료와 자세 교정 등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다진 정현은 그 이후로 틈만 나면 “그 시기가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고 회상할 정도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페더러는 이번 대회에서 5경기를 치르면서 상대에게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모두 3-0 승리를 거둔 덕에 평균 경기 소요 시간은 1시간 58분으로 2시간이 채 안 걸렸다. 가장 긴 시간 경기한 것이 토마시 베르디흐(20위·체코)와 8강전으로 2시간 14분이 소요됐다.

이는 페더러의 ‘속전속결’ 스타일 때문이기도 하다. 체력을 아끼기 위해 3구, 5구

정도에 승부를 끝내고, 일단 상대 서브 게임을 한 차례 브레이크해 우위를 점한 뒤로는 버릴 게임은 확실히 버리고 가는 경기 운영을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현이 페더러에게 맞서려면 최대한 랠리를 길게 끌고 가면서, 상대가 페더러라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도 떨쳐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화려한 백핸드 대결도 관전 포인트다. 페더러는 투어에서 보기 드문 원핸드 백핸드를 구사한다.

페더러의 한 손 백핸드는 ‘그 자체가 예술’이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팬들을 매료하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정현 역시 주니어 시절부터 ‘백핸드는 일품’이라는 칭찬을 들었다. 이번 대회 노바크 조코비치(14위·세르비아)와 16강전에서도 백핸드 위너 수에서 17-4로 압도했다.

2000년과 2007년 US오픈 16강까지 올

랐던 한국 테니스의 전설 이형택(42)은 “지금 정현의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페더러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기 기량을 발휘하면 정현으로서도 해볼 만한 경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현과 페더러가 맞대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현이 지금까지 물리친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상대는 이번 대회 3회전의 알렉산더 즈베레프(4위·독일)다.

현역 세계 1위와 맞대결은 2016년 호주오픈 1회전 조코비치,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2회전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 등 두 차례가 있었고 모두 정현이 패했다.

정현은 남자 테니스 ‘빅4’로 불리는 선수들과는 지금까지 네 번 만나 1승 3패를 기록했다. 나달에게는 2전 전패, 조코비치와 1승 1패의 성적을 냈고 앤디 머리(19위·영국)와는 아직 상대한 적이 없다. /연합뉴스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준결승전  
**정현 vs 페더러**  
26일 오후 5시30분 호주 멜버른

로저 페더러	정현
1981년 8월 8일 (스위스)	출생 1996년 5월 19일 (경기도 수원)
185cm, 85kg	신체 188cm, 80kg
2위	세계 랭킹 58위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2, 2017 윌리엄스 단식 우승</li> <li>2004, 2006, 2007, 2010, 2017 호주 오픈 단식 우승</li> <li>2004, 2005, 2006, 2007, 2008 US오픈 단식 우승</li> <li>2006, 2007, 2008, 2011 프랑스 오픈 단식 준우승</li> <li>2008 제29회 베이징 올림픽 테니스 남자 복식 금메달</li> <li>2008, 2014 윌리엄스 단식 준우승</li> <li>2009 호주 오픈 남자 준우승</li> <li>2009, 2015 US오픈 단식 준우승</li> <li>2009 프랑스 오픈 단식 우승</li> <li>2012 제30회 런던 올림픽 테니스 단식 은메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 제주국제주니어 복식 우승</li> <li>오렌지보울국제주니어 16세부 단식 우승</li> <li>2012 인도국제주니어 17세부 단식 우승</li> <li>오렌지보울국제주니어 단식 우승</li> <li>2013 윌리엄스주니어 단식 준우승</li> <li>캐나다오픈주니어 복식 2위</li> <li>2014 제17회 인천아시아인게임 복식 금메달</li> <li>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단식 금메달</li> <li>남자복식 은메달</li> <li>남자단식 은메달</li> <li>2017 ATP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 우승</li> <li>(한국 선수로 14년 10개월 만)</li> </ul>

### “페더러 상대할 땐 전력 질주하고 들이받아라”

#### 외신들, 정현 조명 잇따라

정현(58위·한국체대)의 거침없는 성장세에 해외 주요 언론은 연이틀 찬사를 보내고 있다.

미국 CNN은 25일(한국시간) “‘교수님’ 정현이 호주오픈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입증했다”는 제목을 통해 정현의 기량 발전에 주목했다.

CNN은 “이미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대회 준결승에 올랐던 정현은 준결승 진출로 다시 한 번 기록을 썼다. 알렉산더 즈베레프, 노바크 조코비치도 그를 가로막지 못했다”면서 “이제 정현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메이저대회 결승을 경험한 니시

코리 게이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CNN은 “니시코리는 우리 아시아 선수의 자존심이다. 모든 아시아 선수는 그의 뒤를 쫓고 있다”는 정현의 인터뷰를 소개한 뒤 “정현이 새 역사에 도전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정현이 병역 혜택을 받은 2014년 인천아시아인게임 테니스 남자복식 결승전에 주목했다.

당시 정현은 임용규(당진시청)와 한 조를 이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뉴욕타임스는 “만약 그 경기에서 졌다면, 아마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아마 군대에 갔을 것”이라는 정현과

인터뷰를 소개하며 “페더러와 준결승은 큰 의미가 있겠지만, 정현에게는 어쩌면 아시안게임 결승전의 지분이 더 컸을지 모른다”고 전했다.

호주오픈 최고의 ‘깜짝 스타’로 떠오른 정현에게 페더러는 분명 넘기 힘든 벽이 아닐까 싶다. 올해 37세인 페더러는 이번 대회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며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정현이 페더러와 상대하려면 전력 질주하고, 찌르고, 또 들이받아야 한다”면서 “그가 페더러와 경기에서 앞서 아시안게임 결승전을 떠올리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 “동생은 금 만들기 이용당하고 나는 제외됐다”

#### 빙상연맹 착오로 올림픽 출전 무산 빙속 노선영 격한 감정 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행정 착오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전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노선영(콜빙팀·사진)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

그는 24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동생) 노진규는 금메달 만들기에 이용당했고, 나는 금메달 만들기에 제외당했다”는 글을 남겼다.

노선영은 “4년 전 연맹은 메달 후보였던 동생의 통증 호소를 외면한 채 올림픽 메달 만들기에 급급했다. 현재 메달 후보가 아닌 나를 위해선 그 어떤 노력이나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나와 내 동생, 우리 가족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사과는커녕 책임 회피하기에만 바쁘다”고 연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연맹인가. 난 지금까지 시키는 대로 훈련했을 뿐인데, 왜 나와 우리 가족이 이 슬픔과 좌절을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적었다.

“나는 더 이상 국가대표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고 국가를 위해 뛰고 싶지도 않다. 빙상연맹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았다”며 글을 마쳤다.

노선영은 평창올림픽에서 단체전인 팀 추월 종목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개인 종목 출전 자격이 있는 선수들만 팀 추월에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뒤늦게 알게 돼 최근 태극마크를 박탈당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노선영은 평창올림픽 출전권이 달린 1~4차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에서 개인종목보다 팀 추월에 전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ISU가 지난해 10월 잘못된 규정을 알려줬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연맹과 ISU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연맹이 스포츠중재재판소

(CAS) 제소와 같은 적극적인 구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노선영은 인터뷰에서 행정 착오도 문제지만, 이후의 조치가 더욱 화가 난다고 밝혔다.

노선영은 2016년 세상을 떠난 소프트랙 전 국가대표 노진규의 친누나다.

그는 국내 올림픽 선발전을 통과한 뒤 인터뷰에서 “동생이 세상을 떠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나”라는 질문에 수 분간 눈물을 흘리다가 “부모님이 용기를 주셨다. 부모님과 하늘에 있는 동생을 위해 평창올림픽에서 꼭 메달을 따고 싶다”고 했다. /연합뉴스